



지난 8일 서귀포시 성산읍 플레이스 캠프에서 열린 2018 제주국제사이클링 페스티벌에서 총성 소리와 함께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제주 풍광과 어우러진 ‘은륜의 향연’

제주국제사이클링 페스티벌… 성산일출봉 출발
제임스 후퍼 “모험·도전의 가치 알리고 싶어요”

2018 제주국제사이클링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8일 서귀포시 성산읍 플레이스 캠프 제주를 출발, 성산·구좌 해안도로 일원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힘찬 페달을 밟았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2016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제임스 후퍼와 함께하는 원 마일 클로저’ 캠페인을 겸해 열리며 도내 장애인 등 물론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문화도 이어지며 대회의 의미를 배가시켰다.

제임스 후퍼는 개막식 환영사에서 “봉블랑 등반 중 안타깝게 숨진 친구인 탐험가 롬 건틀렛과 제임스 애킨스의 모험과 도전정신을 기리기 위해 자전거 라이딩 기부 캠페인 ‘원 마일 클로저’를 전개하고 있다”며 “그들이

남긴 도전적 가치와 열정을 나눠주고 싶고, 모두가 더 모험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청정한 자연과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 세계의 보물섬”이라며 “제주는 라이딩의 최적지로 제주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건강한 에너지가 일상에서의 새로운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만생 한라일보사 대표이사 사장은 “선수 모두 진심으로 환영한다. 좋은 날씨 속에서 경쟁이든 비경쟁이든 좋은 경험과 추억을 쌓기 바란다”며 “자전거를 타면서 제주의 가을 날씨를 만끽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아오모리현 관광국제전락국 니시오카 타다히로 부매니저와 선수 3명



개막식 환영사를 하고 있는 제임스 후퍼.

(경쟁 1·비경쟁 2) 등 일행은 이날 현장에서 아오모리현에 대한 관광 소개 및 2년전 개발한 자전거 코스는 물론 지역특산물인 사과주스와 센베이 과자 등을 홍보했다.

비경쟁 부문에 출전한 후지다 유키(31)·이치노헤 타카키(34)씨는 “제주

에 오기 전부터 해안도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코스가 좋다는 것을 알고 기대가 컸다”며 “아오모리현에도 좋은 자전거 코스와 대회가 있어 이를 홍보하기 위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경기 종목은 경쟁과 비경쟁 부문으로 나눠 펼쳐졌다. 경쟁 종목은 사이클과 MTB로도로 60km 구간에서 이뤄졌다. 출발 장소인 플레이스 캠프 제주를 시작으로 성산포·종달해변·세화·월정리·만장굴·덕천리·수산리를 왕복하는 코스에서 참가자들은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비경쟁 종목은 34km 구간에서 열렸다. 구간은 플레이스 캠프 제주·성산포·종달해변·세화·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세화·성산포를 왕복하는 코스에서 이뤄졌다.

부대행사로 자전거 스탠딩, 타이어 던지기, 베스트드레서 이벤트를 비롯해 경기 종료 후 비어파티도 마련됐다.

이 행사는 플레이스 캠프 제주, 티웨이항공, 한라일보, 제주도자전거연맹이 후원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푸른여왕’ 한라일보배 대상경주 우승

KCTV배 준우승 설옥전 ‘미인세상’ 잡고 정상 등극
박경후 마주 “기대 않았지만 첫 대상경주 석권 짜릿”

한라마 ‘푸른여왕’이 한라일보배 대상경주에서 짜릿한 역전우승을 일궈며 정상에 등극했다.

‘푸른여왕(3세·암말)’은 8일 랫츠런파크 제주에서 열린 제25회 한라일보배 대상경주(1200m)에서 폭발적인 막판 뒷심을 발휘, 1분22초60초의 기록으로 2위 ‘미인세상(4세·암말)’을 0.2초차로 따돌리며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지구력이 좋은 ‘푸른여왕’은 예상대로 경주 내내 후미 그룹에서 경주를 전개했다. 경주는 4코너 직전까지 ‘비범’과 ‘아시아권’이 선두에서 큰 뒤바뀜 없이 진행됐지만 4코너 이후에 후미에 있던 말들이 대거 추입하며 직선주로에서 대역전극을 성공시켰다.

특히 4코너를 돌면서까지 선두권에 보이지 않던 ‘푸른여왕’은 ‘미인세상’과 함께 결승선 약 400m를 남기고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다. 앞서 7월 열린 KCTV배 대상경주(1610m)에서 ‘미인세상’에 이어 준우승에 머물렀던 ‘푸른여왕’은 막판 스피드를 올리면서 짜릿한 역전 명승부를 연출했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평가를 받았던 ‘미인세상’은 65kg의 부담 중량을 극복하고 막판까지 추격전을 명승부를 펼치며 경마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푸른여왕’과 ‘미인세상’이 출전하는 10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오픈경주’에서의 접전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총상금 8000만원이 걸린 이날 대상경주는 도지사배의 전초전 성격을 띤 경주로서 제주경마 최강의 경주 마들이 출전해 진검 승부를 펼친다.

이날 시상식에는 윤낙현 랫츠런파크 제주 본부장과 배광석 제주경마사업처장을 비롯한 강만생 한라일보사 사장, 강진일 제주마주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만생 사장은 우승마를 배출한 박경후 마주, 좌운철 조교사, 문성호 기수에 대해 시상했다.

박경후 마주는 우승 소감에서 “대상경주 우승은 상당히 어렵다. 좋은 말들이 출마하는 데다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우승까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역전우승을 하게 돼 상당히 기쁘다”라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한라일보배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푸른여왕과 문성호 기수(사진 가운데).

씨름기대주 김민성 기량 ‘쑥~쑥’

춘천소양강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우승
소년체전 3위·시도대항 2위…정상 등극

제주씨름의 기대주 김민성(재릉초 5·사진 오른쪽)이 마침내 정상등극에 성공했다.

장사를 많이 배출한 한림읍 금능리 출신의 김민성은 지난달 27일부터 9월 2일까지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제4

회 춘천소양강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초등부 개인전 경장급(40kg이하)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성은 대회 결승전에서 정상원(부산 안락초 5)에게 첫 판을 내렸지만 이후 두판을 내리 따내며 역전승을

일궈냈다.

앞서 준결승전에서 원도경(울산 방어진초 6)을 단판승으로 제압하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특히 김민성이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기량이 한층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민성은 지난 5월 충주시에서 열린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낸 뒤 6월엔 고향에서 개최된 제32회 전국시·도대항 장사씨름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따라서 대회를 치를수록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금탁기자



콜로라도, 다저스 꺾고 선두 질주

오승환은 하루 휴식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경쟁에 한창인 콜로라도 로키스가 라이벌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격파했다.

콜로라도는 9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쿼이츠 필드에서 열린 2018 MLB 다저스와 홈경기에서 선발 투수 카일 프리랜드의 호투를 앞세워 4-2로 승리했다.

시즌 78승 63패가 된 콜로라도는 다저스(77승 65패)와 격차를 1.5게임 차로 벌리고 지구 선두를 지켰다. 1993년 창단한 콜로라도는 아직 지구 우승 경험이 없다.

콜로라도 원소 에이스 프리랜드는 6이닝 4피안타 8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해 시즌 14승(7패)째를 수확한 것과 동시에 평균자책점을 2.91로 낮췄다.

콜로라도 볼펜 투수 오승환은 이날 등판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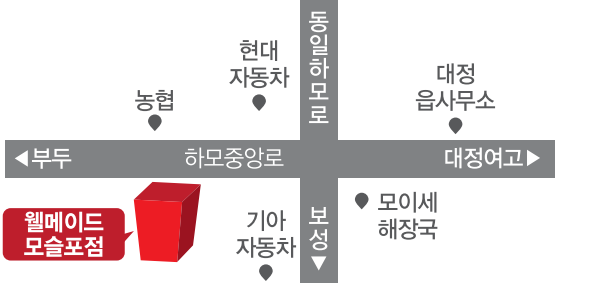
웰메이드(인디안) 모슬포점 9월 7일(금)

GRAND OPEN

WELLMMADE
FOR OUR WORK & LIFE BALANCE
with INDIAN

국민브랜드 인디안을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세요.

웰메이드(구.콜핑) 모슬포점
대표 고수일, 김정인 대상
Tel. 064-794-8949



OPEN EVENT

1. 가을 신상품 금액대별 추가할인
30% SALE + 최대 **7만원** 할인
2. 웨딩 이벤트 정장구매시
30% SALE + **10만원** 추가할인 (혼주/본인 대상)
3. 오픈기념 구매고객 전원 특별 사은품 증정
4. 신규가입 혜택
 - 1만점 적립 및 즉시 사용 가능
 - 첫 포인트 사용시 5천점 페이백
 - 플러스친구 등록시 5천원 쿠폰(즉시사용가능)